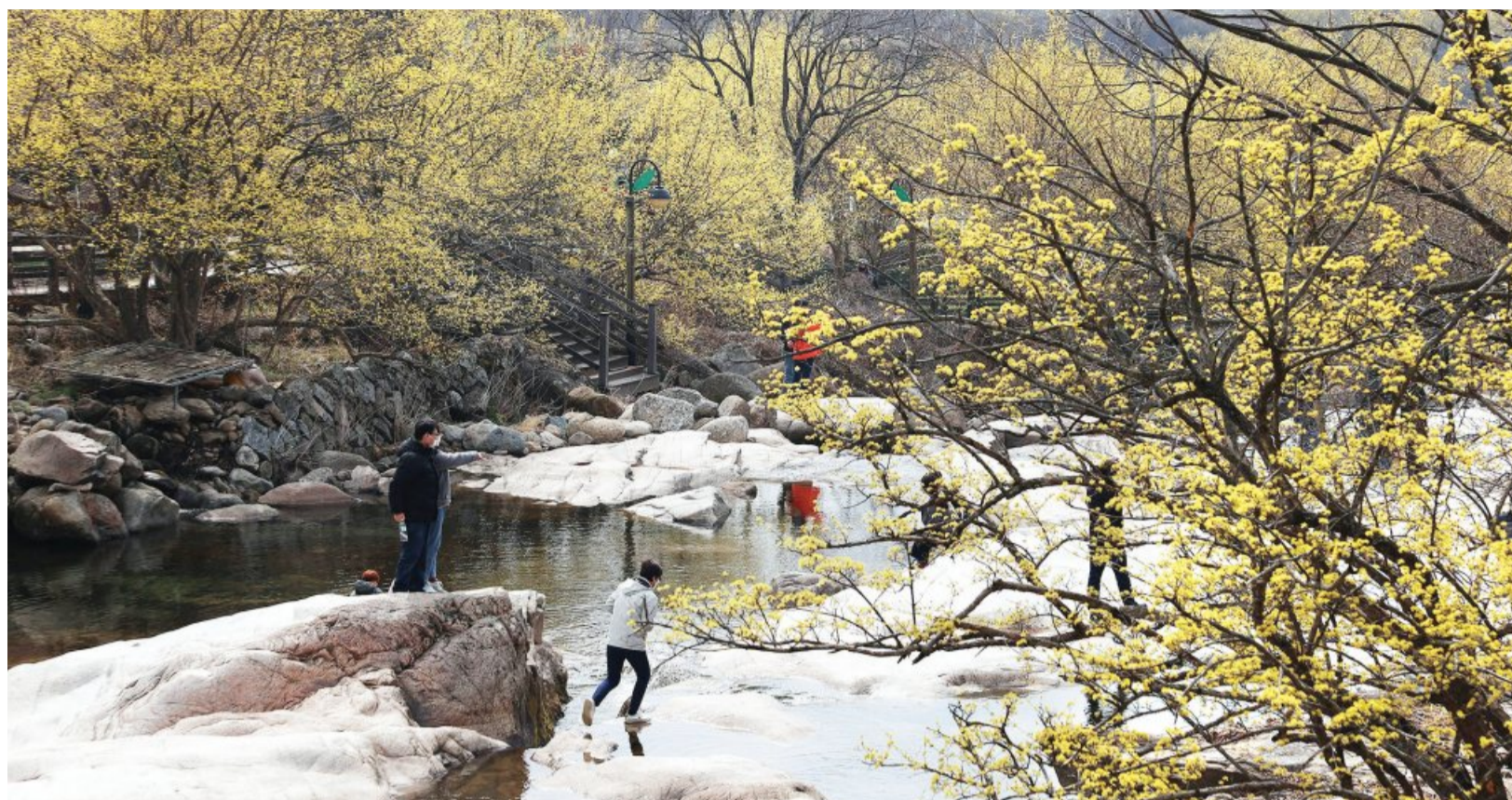


구례 산수유마을의 봄



휴일인 지난 7일 오후 산수유꽃 근각지인 구례군 산동면 반곡마을에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다. 구례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취소했지만, 상춘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구례군 제공>

한센인촌 여수 도성마을 환경 개선

국가균형발전위 공모 선정...22억 들여 2024년까지 집 수리·폐축사 등 정비

한센인들의 정착촌 여수 울촌 도성마을의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여수 도성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국책사업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과 도로 정비 등 도성마을 환경정화 사업이 추진된다.

오는 2024년까지 폐축사 등 혐오시설을 정비하고, 협소한 마을안길 정비와 집수리,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 방재시설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성마을은 한센인 수용소의 원치 환자들이 1976년에 정착하며 형성된 한센인 정착촌이다.

58가구 130명이 거주하는 도성마을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46%,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가 57%이며, 마을 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 내 건축물 383동 중 73%인 278동이 슬레이트 건물이고, 폐축사와 창고 254동이 오랜기간 방치돼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수시 울촌면 도성마을이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사진은 도성마을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도성마을 악취 해결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남(TF)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매주 수요일 TF 팀 회의를 열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성마을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취약지역 대상 마을을 지속 발굴해 행복한 농촌 마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 죽산재' 전남도 지정문화재 고시

불교적 요소에 민화 단청 근대 목조건축...인물·역사 가치 높아

고흥군은 근대 목조건축물인 '고흥 죽산재'가 전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293호)로 지정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고흥군이 보유한 49번째 전남도 지정문화재다.

죽산재는 1933년 죽파 서화일(1860~1933) 선생이 고흥군 동강면에 서재로 쓰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죽파 선생이 준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아들인 월파 서민호(1903~1974) 선생이 완공해 북파 선생의 제실과 자신의 서재로 사용했다.

1933년 건립된 죽산재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ㄷ'자형 구조를 갖췄으며 기단이나 초석이 잘 다듬어져 있다.

건축적으로 정교하고 화려하며, 불교적 요소에 근대기의 풍물이나 경관이 녹아든 민화풍의 단청이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죽산재는 지역민과 서민호 선생의 후손들이 2010년 8월 자연환경 국민신탁에 기증해 관리되고 있다.



전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고흥 죽산재. <고흥군 제공>

월파 서민호 선생은 고흥 출생으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년간 복역했으며, 광주시장·전남지사·거창양민학살사건 국회조사단장·UN 총회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하며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1971년에 통일문제연구소를 개설해 연구에 전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국민신탁에 기증된 죽산재를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2017년부터 분주히 뛰어다녔다"며 "죽산재의 건축적인 가치뿐 아니라 인물·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4/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고흥군, 균비로 150동 추가...사업비 절반 300만원씩 제공

고흥군이 농업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보급을 확대한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과수·채소, 특용작물 등 2ha 이하 소규모 재배 농가의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는 효자 품목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총 214동에 대한 사업비 12억840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64동의 도비를 포함해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수요 요구를 받아들여 균비 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2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9.9㎡ 규모의 소형 저온저장고 214동을 농민에게 사업비 600만원 중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 1월 주조지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완료하고 시공 능력, 애프터서비스 등이 검증된 시공업체를 공모해 전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업체 7곳을 선발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흉수 출하 예방과 신선도 유지 등 활용도가 높아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4/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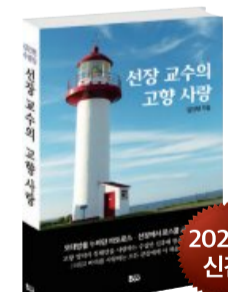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2021 신간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2021 신간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희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 떠난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갑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